

국가안보 및 생존권 수호의 군 특수적 환경 요인으로 인한 군인자녀의 교육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김 병 진*

요 약

군의 사기침체는 우수 인력의 손실, 전투 의지의 약화, 군의 신뢰감 손상, 업무 능력과 근무 의욕의 저하 등으로 이어져 국방 태세와 국가 안보 및 민족의 생존권 수호의 측면에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보다 건실한 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침체된 군의 사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철저한 진단과 그 결성으로 인해 근무지를 자주 이동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특성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 과에 부합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직업군인은 군대라는 직업의 특수자녀 교육 문제이다. 군의 잦은 근무지 이동은 가족이 동반하여 자주 이사하거나 자녀 교육의 문제로 가족과 별거하는 등 전반적인 군인 자녀교육의 실태를 분석근거로 제도적 개선을 제언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Education Status and Improvement of Military Children due to Special Environmental Factors of National Security and Survival Rights

Kim Byoung Jin*

ABSTRACT

The military's morale is a serious threat in terms of defense posture and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nation's right to survival, as it has led to losses in talented manpower, weakened fighting spirit, damaged troop confidence, and reduced work efficiency and morale. Under these circumstances, a stronger defense posture and maximum morale among the troops should be followed by a thorough diagnosis and result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military's morale. Professional soldiers often travel to work because of the special nature of their jobs. Among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se characteristics is child education. Frequent shifts of military sites are intended to be mad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overall state of the military service education system, such as moving frequently with family members or separating with the family due to issues related to children's education.

Key words : Soldiers, Frequent, Education, Military, Children

접수일(2018년 9월 3일), 게재확정일(2018년 9월 23일)

* 영남이공대학교 부서관과

1. 서 론

직업 군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토대로 현실상을 먼저 소개하려 한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직업군인에 대한 인식이 국가에서 주택, 자녀 학비지원 및 면세, 전역 후 즉시 연금혜택을 주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전혀 없으며, 특히 사회 사람들의 인식이 군인은 가족포함 특혜를 받고 있는 인식 및 관념을 가지고 있다. 과거 1960-1970년대 군 아파트의 경우는 민간인들의 신기한 건물로 생각하여 일부 초, 중, 고교 학생들의 관광 형식의 견학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투자사업(BLT)사업에 의해 군 아파트가 좋아지고 있지만 전방지역의 군인아파트는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인가족, 자녀들은 어려운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실정이다. 이처럼 직업 군인이 1년 365일 중에서 훈련, 근무, 파견 등으로 약 1/3정도 퇴근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군인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잘못된 인식 및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2. 직업 군인 제도와 군 복무환경

다음은 직업군인제도와 군복무환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실상을 인식하였다.

2.1 직업군인제도

군이라는 조직은 다른 어느 조직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보위에 관련되는 사회의 어떠한 요청에도 즉각 부응함으로써 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전문 직업으로서의 소명인 것이다.[1] 그러므로 군 직업은 다른 어느 직업보다도 국가를 대신하며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이익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 직업적 능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조직 성원들에게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임무를 완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문 직업이란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 기준에 따라 공무에 봉사하도록 공적으로 선언된 직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팅톤(S. Huntington)은 전문직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로서 전문성(expertise), 사회적 책임성(social responsibility), 단체성(corporateness)을 들고 그러한 기준에 비추어 군은 당연히 하나의 전문 직업임을 강조하고 있다[2] 이와 같은 기준이 전문 직업의 이상형이라 한다면 이상형에 가까운 군대일수록 강력하고 교육적인 군이 될 것이다.

직업 군인은 일반적으로 군인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한 장교 및 부사관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 군인은 합법적인 폭력의 관리자인 군의 핵심 인력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존재 의의를 고려할 때 소명업(召命業)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3]과 전문직으로서 요구되는 군사 전문성을 구비하고 군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 군인 제도의 정착은 충성, 봉사, 공익정신 등을 위주로 하는 공조직적 가치와 직업의 안정을 추구하는 직업적 가치, 그리고 전문 지식, 기술, 성취욕 등을 포함하는 전문가적 가치라는 세 가지 성향을 모두 충족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군사 전문성과 직업성 보장이 군 직업주의의 중심과제라 할 수 있다.[4]

과거에는 직업 군인들 스스로가 직업 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그것은 직업 군인들이 군 생활을 생계유지 수단인 일반 단순직업(occupation)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소명직(calling)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개인적 이익에 앞서 군대와 국가를 생각하도록 강조하였기 때문이다.[5]

그러나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사회학자 모스크로스(C. C. Moskos)는 최근 군 조직 성원들이 조직적 차원의 통합을 위한 내적 압력과 군 조직을 다른 직업 집단과 동등하게 파악하려는 사회적 추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시대 변화에 따라 직업 군인들의 가치관이 소명의식을 중시하는 공조직적 가치관(institutional values)에서 직업성을 중시하는 직업적 가치관(occupational values)으로 변화하면서 직업 군인을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6]

2.2 군복무환경

군인을 평생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 선택을 하였을까? 4년제 사관학교 외에 타 임관 출신자(학군, 학사, 3사, 간부사관 등)들이나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체계화된 자료가 없어 일반화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군을 택한 사람의 경우 적성에 따른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음 장의 <표1>에서 엿볼 수 있다.

<표1> 육군사관학교 지원동기 분포 (2016~2017학년도)

지 원 동 기	2016	2017
군인직업이 좋아서	24.5	38.0
사회진출 과정으로	24.9	21.2
국가에 봉사하기 위하여	16.3	15.6
군내 진급진망이 좋아서	8.2	5.6
사회적 평판이 좋아서	8.2	5.6
경제력이 부족해서	5.3	4.8
기타	12.7	9.2

※ 자료 : 국방부 「국방 복지정책서 조사결과 2017

이렇게 군인이 좋아서가 최근에 38.0%로 늘어나며 또한 사회진출 과정이나 국가에 대한 봉사도 꽤 높은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군인은 몇 가지 타 직업과 구분되는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군은 존재 목적과 임무, 복무환경 등으로 인해 타 직업과 확연히 구분되는 직업 여건을 지니며 군인 자신을 비롯한 가족 전체의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요구한다.

둘째, 군 조직은 근로자로서의 군인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노조 같은 조직이 없다 잦은 전속으로 직업 군인 및 그 가족에게 불안정한 생활을 야기하고 있다. (<표2> 참조)

<표2>에서 보는바와같이 직업 군인들의 이사 횟수는 평균 7.7회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2년에 한번 꼴로 이사를 하는 것이다.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아 중·대령급은 평균 12회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7]

<표2> 계급별 이사횟수

구 분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준위	상사	중사
전속경험(회)	14.9	9.2	6.7	4.1	7.0	5.9	3.8
이사횟수(회)	12.4	11.9	7.2	5.5	7.2	8.1	5.7

자료 : 정선구, 「군의 종합복지정책연구」, 국방연구원, 1990

※ 소,중위는 대부분 미혼이고 전속경험이 적기 때문에 생략함

1-2년 만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군인 가족들은 자녀교육 및 경제적인 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사비용의 지급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경제적인 어려움조차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군인 자녀의 애향심이나 모교애의 결여로 인한 정서적 불안, 개인의 재능 발굴이나 학업 성적 유지의 제한 등은 금전적 보상이 어려운 부분이며 다수의 군인은 자녀 교육을 위해 별거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안정한 가족생활과 매월 약 30-60만원에 이르는 추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군 자녀의 교육 실태 및 문제점

3.1 군인 자녀 교육 실태 및 문제점

군인 자녀교육의 현실별 분석에 앞서서 한국군의 경우 군인 자녀교육의 배경이 되는 정책적인 변모과정을 고찰해 본다.

한국군에 있어서 군인 자녀 교육의 문제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된 것은 1960년 말로써 국가의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추진되었던 군대의 복리후생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8] 군은 국가 사회 발전 추세에 맞추어 군내의 모든 시설과 간부들의 생활수준을 사회수준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1960년대 말부터 위탁건립 문제, 보수수준의 현실화 추진, 복지시설의 확충 등의 제 복리 후 생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군인자녀 교육의 문제가 최초로 대두된 것은 이와 같은 군의 복리후생 정책의 일환으로 군 간부들의 잦은 교체 근무로 발생하는 자녀 교육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군 간부들의 사기 양양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두되었으며[9] 이와 같은 문제의 대책으로 군인 자녀들의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되어 1969년 최초로 서울과 춘천에 각 1개교의 고등학교의 건립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군인 자녀 교육기관의 운영 결과를 보면 개교 초기에는 대체로 운영이 잘 되었으나 학교 자체의 위치 문제와 고교 평준화 정책이후 군인 부모의 호응도가 낮아져서 군인 자녀의 학생수가 줄어들자 국방부로부터 지원이 줄어들어 점차 운영자체의 부실을 가져와서 1979년 및 1982년에 각각 그 운영권이 타 기관으로 전도되어 현재는 군인자녀교육기관은 없는 상태에 있다.

한편 군인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하나의 획기적인 조치는 군인자녀들의 학비면제에 대한 조치가 그것이다. 당시의 군 간부들의 보수 수준에서 자녀 교육의 비중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10]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방부는 1972년 9월 19일부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하사 이상 대령급 이하의 직업 군인 자녀들에 대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군인처지개선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를 거쳐 확정짓게 되었다.[11]

대체로 군 간부의 경우 군인 자녀교육과 관련한 정책적인 차원은 군인 자녀 교육기관의 설립과 군인 자녀의 학비 면제조치로 요약될 수 있다.

3.2 현 군 자녀 교육지원제도 및 실태

현재 군 자녀 교육지원에 대해 현역 및 전역 군인의 학비 지원제도를 보면 현역 군인의 경우 중 고생 자녀의 학비 전액을 지급하여 주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는 각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액 규모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리고 군인 공제회에서 신입생에 대하여 약간의 입학 축하금을 주며, 국가에서는 국고로 학자금을 대어해 주고 있다.

전역군인의 경우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미취업 전역 부사관의 중고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는 재향군인회에서 극소수만 혜택을 주고 있다

3.3 군인 자녀 교육의 문제점 및 분석

군인 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군 간부들의 잦은 교육과정 및 전·보직, 벽지근무, 초과근무, 군 인력관리의 특수성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녀 교육 실태는 대체로 초등학교 교육은 자신의 근무지에서(89%), 중학교 이상 교육은 일정지역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5%)

이와 같은 군인자녀교육에 미치는 요인과 실제 취학실태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군 간부들은 “선 교육 후 보직” 원칙 하에 실시되고 있는 잦은 교육 및 전·보직에 의하여 군 생활에 걸쳐서 평균 1~2년에 한번씩 이주가 불가피하여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육은 자신의 근무지에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초등학교 6년 간에 최소한 3회 이상 전학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와 같은 초등학교 기간에서의 잦은 전학의 문제는 아동기의 정상적인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쏘다이크(E.L. THorndike)에 의하면 아동기(Childhood, 5~12세)의 발달특징을 취학에 의한 사회성의 발달과 지적으로 어휘가 급격히 발달하고 구체적인 사고에서 추상적인 사고에로 이행하는 과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 기간에서 자녀 교육에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과 자녀들의 요구와 흥미에 적합한 것을 제공해주고 풍부한 경험을 갖도록 최대한의 조건과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2]

그러나 군인 자녀의 경우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잦은 전학을 실시함으로써 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와 교육관계에서 전학 때마다 항상 새롭게 사귀어 나가야 함으로 해서 자칫 고립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학과 학업 성적과의 관계에 의한 연구[13]에서도 잦은 전학의 문제가 학업부진의 요인임을 밝히고 있어서 군인 자녀들의 초등학교 기간의 잦은 전학의 문제는 그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을 갖게 되어 원만한 학교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업 성적의 부진에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음은 군 간부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과 실태에서 나타났듯이 중학교 이후의 교육은 일정 지역에서 시키고자하여 자신은 홀로 근무지에 남게 되어서 장기간 그들 자녀와 떨어진 가운데 교육을 해야 하는 문제이다.

중학교 이상의 기간은 쏘다이크(E.L. Thorndike)의 견해에 따르면 과도기 및 청년기간(Early Adolescence, 14~18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흔히 이 기간을 “과도기”, “제 2의 탄생”, “제 2의 부정기”, “격동기”라고 하며[14] 홀(G.S.Hall)은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storm and stress periods)라고 지적하면서 이 시기의 특징으로 불안, 공포, 허무감, 반항, 좌절감, 권위에 대한 도전, 기존 질서에서의 저항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야말로 그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다.[15]

그러나 군인 자녀의 경우 이 시기에 대부분 아

버지와 때로는 양부모와 떨어진 가운데 생활을 하여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샤우(C.R.Shaw)와 메케이(H.P.Makay)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비행소년에서 결손가정 출신이 42.5%, 정상 소년에서는 36%라고 보고하면서 비행의 원인으로서는 결손가정이 차지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하였다.[16]

따라서 군인 자녀들의 중학교 이후부터의 부모 또는 양 부모와 장기간 떨어진 가운데 생활을 하여야 하는 문제는 군인 자녀 교육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음은 군 간부들이 그들의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하여 그들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거의 그들 가족과 떨어진 가운데 군 생활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여 그들이 부대 근무에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군전투력과 관련하여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국군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군의 경우 1960년대 군 간부들의 전역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 그들 부인들의 불평에 있으며 부인들의 불평 내용은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한 가정생활의 불안정에 있다고 한 국방보고서가 보고하고 있다.[17]

따라서 현 군인 자녀 교육의 문제는 군 간부들의 사기와 직결되어 군전투력과 관련하여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설문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서 필요한 주거 주택 다음으로 자녀 교육 및 전학이 18.43%로 두 번째로 큰 관심사임으로 미루어 볼 때 직업 군인들 역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 군인의 경우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전반적으로 자녀교육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군인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며 군의 사명감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군인으로서 가장 큰 애로는 자녀 교육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53.76%로 절반이상이 응답하였었다. 그리고 자녀 교육문제와 군의 사기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2.44%로 절반이상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이라는 분단된 나라에서 군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녀 교육에 더욱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군인 가족 동거 형태는 72.94%가 온 가족이 동거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28% 정도가 별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별거로 인해 자녀를 역시 전학을 다니게 되며 한 예를 이동을 자주 하는 장교와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부사관과 서로 자녀의 성적을 비교해 보았다. 장교와 부사관의 자녀들의 성적 분포도는 장교의 자녀들은 상위 층이 67.35%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부사관의 자녀들은 77.7%라는 높은 비율이 나와 있다. 이런 결과는 아무래도 근무지를 자주 이동하는 장교의 특성상 장교의 자녀들이 부사관의 자녀들보다 잦은 전학 및 열악한 면학 환경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러한 환경에 비해 자녀들에 대해 기대하는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는 한명도 없으며 전문대 졸업도 아들만 2명이며 자신의 능력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명뿐이다. 대부분이 아들이나 딸에 관계없이 대학 및 대학원이상 졸업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는 군인들의 대다수가 일반 부모들과 같이 아들이나 딸에 관계없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군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달리 군의 자녀 교육 지원제도는 회사나 공무원에 못지않다 라는 항목에서 그렇다는 응답(17.07%)보다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40.24%)이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교육 지원 제도에

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장기 복무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제도에 만족한다.'도 18.29%이라 자녀의 교육 지원제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군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관심은 많은데 불구하고 현실적인 교육 지원 제도에는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설문에서도 군인이 회사원이나 공무원보다 자녀교육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항목에서 71.96%라는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그리고 군인에 대한 복지수준은 회사나 공무원보다 나아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82.96%라는 높은 응답으로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군인이라는 희생을 필요로 하는 직업상 그만큼 특수성을 제도적으로도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엔 직업 군인의 빈번한 지역적 이동 및 격오지 근무는 자녀교육과 직결되고 있어 학업부담이 가중되는 중고교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별거 이유 중 학교 교육 여건 때문이라고 25.86%로 두 번째로 많았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녀의 교육에 관심은 많은데 일반인과 달리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시제도 및 각종 장학금의 혜택에 대한 지원금 및 수혜 대상의 확대 그리고 각종 교육지원 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직업 군인들 역시 일반인과 같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 줌으로서 군인이 마음 놓고 군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군 전력에도 크게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4.2 제 언

이상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군인의 주거 지원 및 자녀교육 지원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전문 상담 교사의 활성화

초등학교 시기의 전학은 학교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동시다발적인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가정과 학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전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학교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인 자녀들처럼 잦은 전학을 하는 전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할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군인 자녀 교육에 대한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구축

군 인사 관련 부서에서는 지역 공동체와의 프로그램 구축과 관할 지역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 관, 군 협약에 의해 군인자녀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잦은 이사 및 아버지와의 별거 경험으로 인한 학교 적응도 영향, 정서적인 발달 불안정, 사회적응능력의 미숙 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할 지역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군인 자녀와 일반인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캠프 및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주거지원 개선

직업군인은 군부대 주변의 일정지역에 거주해야만 하는 직업적 요구로 인해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군의 전반적인 주거시설의 낙후는 직업군인과 그 가족에게 일생에 걸친 군 생활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성장에 따른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속연한에 따른 주거지역의 선택권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성장 및 교육에 불리한 점 (애향심 및 모교애 결여, 교우관계 불리, 정서적 불안, 학업성적 유지, 재능 발굴 곤란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녀교육에 대한 특별 복지 예산 지원 활성화

군인 자녀들은 특수한 직업적 환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추가비용, 사교육비등 지출이 많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근무하는 군인 가족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 국방부에서는 선택적 복지 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군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제도를 살펴보면 기존의 중앙 공급식 복지와는 달리 별도로 자신에게 할당된 금액 안에서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 이용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일정액의 복지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군조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수항목인 생명 보험료를 지불하고, 잔액으로 헬스클럽, 콘도이용,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 취미생활에 필요한 항목 등을 선택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된 복지제도로써 국방부에서는 작년 시범 운영을 거쳐 금년부터 전군에 도입 운영케 함으로써 군 복지 수준을 제고하여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 외에도 자녀 교육지원차원에서 군인자녀교육에 필요한 더 많은 예산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군인 자녀를 위한 군 인력 지원

전방은 후방에 비해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의 상대적인 낙후로 자녀의 교육적 욕구를 일반인 자녀들에 비해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군인 대다수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방법으로 군에 있는 우수한 인력을 선별하여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제도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여섯째, 직업군인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 활성화

대학 특례 입학 제도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 2항 특별 22행”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배경은 보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환경과 근무 조건에서 복무하는 부사관들의 자녀들에게 교육 혜택을 위해서였다. 그 결과 최초 2000학년도에는

연대, 고대 등 13개 대학에 부사관 자녀만 137명을 합격시켰고 2001년도에는 28개 대학에 부사관 자녀만 293명 확대 모집하였다. 그 후 2002학년도부터는 장교와 준사관 자녀도 상기배경에 준하여 현역간부 모두에게 적용하여 총 43개 대학 370명을 모집하였고 2003학년도에는 49개 대학 400명을 모집하였으며, 2004학년도에는 56개 411명을 모집하였으며, 2006학년도에는 62개 대학되면서 2012학년도 88개 대학으로 확대 되어오다 최근 2017학년도 128개 대학(일반대학70,전문대학58)으로 시행되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별 전형유형에서 장교, 부사관, 예비역 10-20년 이상 구분하지 말고 대학별 혜택을 10년 이상 장기 재직 중 또는 예비역간부자녀로 대학별 유형을 통일시켜 시행되어야 하겠다.

일곱째, 군 자녀 학비지원 및 기숙사 건립

중·고생 자녀학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으나, 대학생 자녀학비는 한 세대 당 1명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런 지원에 대하여 만족보다는 불만족이라는 의견이 약간 더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장학금을 대폭 늘려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를 간접적으로나마 충족시켜 주어야한다. 기숙사 지원도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대도시나 지역 단위의 미비한 군 지원 기숙사 시설을 소도시까지 확충시켜 전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입주 혜택을 부여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군인 자녀 교육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조사대상에서도 연령별, 지역별, 근속연수별, 병과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3권 2호, 1997, p.6
- [2] 이종인, “직업군인의 전문 직업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국방논집, 제 31호, 국방연구원, 1995, p.31
- [3] 직업군인 중 특히 장교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서 “장교의 도,” 육군본부, 1997)
- [4] 화랑대연구소, “군인 연금제도 개선방안”, 1997, p.40
- [5] 홍두승, “한국군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사 1993, p.99
- [6] Moskos, C. C, “From Institution to Occupation Armed Forces And Society”, vol. 4 No 1, Nov 1997, p.41-49
- [7] 군인 부인의 스트레스 우선순위는 이사(92.5%), 주택환경(88.6%), 명절이나 시댁행사(86.6%), 생활비부족(84.6%), 남편의 늦은 귀가(83.1%) 등, 한겨레21, 1996, p.76
- [8] 박명웅, “북리후생시설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1979, p.2
- [9] 국방부(편), “학교설립목적”, 국방부, 1969, p.1
- [10] 김석재, “직업군인의 이직 및 전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5, p.14
- [11]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육본 1977, p.213
- [12] 김용래, 교육심리(서울 : 세광공사, 1980), p.43~51
- [13] 정태환,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 환경이 학업 성적 및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80, p.17
- [14] 김용래, 전제서, p.45
- [15] 상제서, p.39
- [16] 박우의, “가정적 조건이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일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2. p.41
- [17] 백낙서, “부대와 사회” 범문사, 1974, p.156

————— [저자 소개] —————



김 병 진
2007 육군대학졸업
2005 강원대학교 교육학과(석사)
2018 안동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2017~현재 영남이공대학교
부사관과 조교수
관심분야 : 군사보안, 정보 보안, 군체육
E-Mail : jjang4012@ync.ac.kr